양촌선생 "주역천견록" 해제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시설(施設 12

정풍(正風)은 인간의 도리가 그 올바름을 얻은 것이요, 변풍(變風)은 인간의 도리가 그 올바름을 잃은 것이다. 인간 도리의 올바름은 안방에서 시작하여 그 끝마침은 천하에까지 미치니 왕도를 행하는 자의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난다. 인간 도리의 잘못됨도 안방에서 시작하여 그 끝마침은 형제와 친척들이 서로 죽이고 외부의 적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화가 미치는 데까지 이른다.

<서리(黍離)>는 격이 낮추어져 국풍이 되었지만 왕(王)이라는 호칭을 바꾸지 않았으니 십삼(十三) 국풍의 첫머리가 되고 '패풍(邶風)'·'용풍(鄘風)', '위풍(衛風)'의 앞에 있어야 당연하다. 그런데 변풍인 '위풍'이 안방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효과가 모두 '주남'과 서로 반대가 되었으며 시작과 끝마침의 증거가 가장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를 들어 변풍의 시작으로 삼아 그 효과를 드러낸 것이다.

<백주(栢舟)>,<녹의(綠衣)> 등 여러 편을 읽어 보면 장강(莊姜)이 바르고 얌전하면서도 장공(莊公)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정시지도(正始之道)가 <관저>와는 서로 반대된다.<연연(燕燕)>을 보면 주우(州吁)가 공자 완(完)을 시해하였으니 <종사(螽斯)>의 자손이 많이 불어나고 화합하여 모인 것과는 서로 반대된다.<개풍(凱風)>·<포유고엽(匏有苦葉)>을 읽어 보면 국중(國中)에서 나타난 현상인데도 '주남'의 <도요(桃秀)>에서 남자와 여자가 바른 것과는 서로 반대된다. <간혜(簡兮)>와 <북문(北門)>을 읽어 보면 현명한 사람이 뜻을 얻지 못하여 일이 주어지기만 하고 어느 누구도 그어려움을 알아주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니, '주남'의 <토저(兎罝)>에서"삼가 숲 가운데 토끼 그물을 치니, 헌걸찬 무부(武夫)는 공후(公侯)의 복심(腹心)이로다"와 서로 반대된다. <격고(擊鼓)>를 읽어 보면 싸움터에 나가는 일이 그치지 않아 백성들이 근심하고 고생하며,<북풍(北風)>을 읽어 보면 국가가 위태롭고 어지러워 백성들의 기상이 수심에 잠겨 있고 참담하여,<부이(芣苡)>의 화락한 것과 서로 반대된다. <식미(式微)>·<모구(旄丘)>를 읽어 보면 위(衛)나라가 쇠퇴한 이후 국력을 떨치지도 못 하고 방백(方伯)-연수(連帥)의 직책조차 수행할 수 없었으니, 하물며 천하에 미칠 것을 바랄 것인가? 그러니 저 <한광>과 <여분>에서 교화가 천하에 미친 것과 서로 반대된다. <이자승주(二子乘舟)>를 읽는 데 이르면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니 인간의 도리가 짐승의 지경에 빠졌고 하늘의 이치는 없어졌다. <인지(麟趾)>에서는 공자(公子)들이 어질고 무던하여 왕도를 행하는 자의 상서로운 징조가 되었으니, 같은 세상에서 함께 말할 것이 못된다. 시작을 삼가 하지 않음이 끝에 가서는 이와 같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패풍'이 이에 끝을 맺는다. 그런 연후에 오랑캐의 화가 있어 위나라가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 성인의 마음은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집안을 잇게 하여 반드시 변(變)이 정(正)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위나라는 이미 멸망한 뒤에 그래도 다행히 문공(文公)이 근면하고 검소하여 초구(楚丘) 땅으로 자리를 옮기어 강숙(康叔)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은 위구심을 느껴 극심한 난리가 잘 다스려 지기를 생각하였으며 지나간 일을 뉘우치고 착한 일의 실마리를 일으켰다. 음탕해서 바람난 사람을 풍자하여 <체동(蝃蝀)>이 지어졌고, 예의가 없음을 미워하여 <상서(相鼠)>가 노래 불리워졌고, 현명한 이를 예우하고 착한 이를 좋아하여 <간모(干旄)>가 지어졌다. 위나라가 다시 일어날 기세가 있자 성인이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용풍(鄘風)'을 '패풍' 다음에 두어서 어지러우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경계하였으며, 또한 망하였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래도 미흡한 것이다. 반드시 대아군자(大雅君子), 즉 바르게 간하는 말을 듣고 예로써 스스로 대비할 줄을 아는 위나라 선대의 임금인 무공(武公)과 같은 사람이 있은 연후에 풍(風)의 변(變)이 정(正)으로 회복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한 <기욱(淇奧)>을 선두에 놓고 '위품'을 다음 차례에 두었다.

시대와 세상을 논한다면 <기욱>은 '대아(大雅)'의 때에 지어졌지만 <용풍>에서 위가 멸망한 뒤에 놓이게 된 것은 대개 이 때문인 것이다. 예컨대 저 패(邶)와 용(鄘)의 땅이 이미 위 나라에 편입되었고, 그 시들이 모두 위 나라 일을 읊은 것이건만 그대로 옛 나라의 명칭을 붙인 것은 그 시들을 채집한 땅에 따라서 구별한 것으로, 또한<한광>과 <여분>이 남국에서 지어진 것이긴 하지만 '주남'에 붙인 것과, 존속과 멸망을 가지고서 '춘추'에서 진(陳)과 송(宋)의 일을 기록한 뜻과 같다.

위 나라 시의 앞과 뒤가 모두 '주남'과 서로 반대가 되니, 그 변화의 결과가, 또 회복되어 바르게 될 수 있는 도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열국(列國)의 풍은 그 변화가 비록 심하다 할지라도 끝과 시작이 이만큼 완전히 갖추어진 것은 없다. 그러므로 특별히 위 나라의 시를 머리로 삼고 '왕풍'을 그 다음에 둔 것이다 '왕풍'은 비록 열국의 지위로 떨어지긴 하였지만, 또한 '왕풍'을 높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선두에 자리매김한 것이다. 저 위엄을 갖춘 명령을 천하에 시행하는 사람은 천자다. 일국(一國)에 시행하는 사람은 일국의 임금일 따름이다. 평왕(平王)은 앞서 포사(褒姒)의 변란을 당하여 태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으니, 주 왕실의 도는 이미 정통성을 잃었다. 신후(申候)가 견융(犬戎)과 함께 유왕(幽王)을 시해하여 평왕을 세우니, 신후는 왕법에 의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적도다. 평왕은 다만 차기를 왕으로 세워 준 은덕만 알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줄을 몰랐으며, 적도를 토벌해야 할 군사들을 데리고 도리어 신(申)땅을 지키는 행동을 하였다. 신후는 외가(外家)라 하여 죽이지 않았다 치더라도 견융은 어찌하여 하늘이 명하는 토벌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일들은 평왕이 옛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터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26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삼가 바라옵건대 자전께서는 문모와 맹모의 자애를 본받으시어 미리 가르치고 솔선해 보이는 일들이 반드시 정도에서 나오도록 하실 것은 물론,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서 먼저 의리(義理)와 공사(公私)의 분별을 명백하게 하는 것으로써 근본을 확립하시면, 마음에서 발생하여 행동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는 정사를 해치게 되는 일이 저절로 적을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아들이 태어난 그 처음에 습관('논어'에서도 '성상근性相近 습상원習相遠 ; 인간의 본성은 서로 가깝게 비슷하지만, 학습이나 습관에 의해 달라진다' ; 범인과 성인聖人으로 멀어진다 / 필자주)'들이기에 따라 스스로 철명(哲命)을 받게 되는 것이니, 지금 하늘이 철(哲;밝음)을 명할는지, 길흉(吉凶)을 명할는지, 역년(歷年)을 명할는지는 오직 지금 이 초정(初政)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송(宋)나라 범조우(范祖禹, 1041-1098)가 철종(哲宗, 1077-1100, 재위 1085-1100)에게 '폐하께서 오늘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에 앞날의 치란(治亂)이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어리시긴 하지만 바로 정도로 함양하고 습관을 단정하게 할 때이니, 학문의 공력을 조금이라도 폐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질고 덕이 있는 선비를 정밀히 선택하여 강독을 권면하는 관원에 보충시키고 경연이 있은 뒤에도 상례에 구애됨이 없이 편전(便殿)에서 수시로 소대(召對)를 열어 혹 종용히 담화도 하고, 혹 경사(經史)를 강론하기도 하고, 혹 민간의 고통을 묻기도 함으로써 정의(情義)가 서로 미더워지게 하셔야 합니다. 진강(進講)하는 관원도 범연히 몇 번 읽기만 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 읽게끔 하여 문장의 내용을 상세히 깨치어 알게 한다면, 학문만 진전할 뿐 아니라 사대부를 접하는 시간 또한 많아져서 자연히 덕성(德性)이 함양되고 성학(聖學)도 성취될 것입니다. 또 경연관으로 하여금 널리 고례(古例)및 선유(先儒)의 격언(格言)을 상고하여 참작해서 계달하게 하고는 이를 좌우에 진열하여 반성하는 자료로 갖추게 하소서.

임금의 덕은 성효(誠孝)가 제일 큰 것으로 상을 당하여 슬픔을 다하는 것이 생시의 봉양보다도 중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대행 대왕에게 자도(子道)가 있고 신도(臣道)가 있습니다. 비록 어리신 탓으로 모든 예제(禮制)를 준행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차(喪次)에 오랫동안 임어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제사에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으셔도 안 됩니다. 마땅히 기력을 잘 헤아려서 대례(大禮)에 어긋남이 없게 함으로써 성효를 다하소서.

옛부터 화란(禍亂)의 발생은 흔히 궁금(宮禁)이 엄하지 않은 데서 연유되어 왔습니다. 여알(女謁 ; 여자들의 청탁성 정사관여)이 성행하게 되면 척리(戚里;외척)와 소인들이 이를 반연(攀緣;攀聯;세력있는 사람과 교분을 맺어 부여잡고 / 필자주)으로 청탁하여 국정을 문란시키고 은밀한 참언(讒言)으로 임금을 현혹시켰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연소하신 주상이 위에 계시니 더욱더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내외에 신칙하시어 방금(防禁)을 엄히 하여 비록 척리의 문안이라 할지라도 한계를 두게 함으로써 안의 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깥의 말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화란의 싹을 막게 하소서. 궁인(宮人) 가운데 반드시 온량(溫良)하고 공검(恭儉)하며 말이 적은 자를 가려서 항상 좌우에서 모시게 하여 부박 사치스런 풍습과 천근 비속한 언사에 이목이 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또한 보양의 일단(一端)이 되는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궁인을 선택해 들임에 있어서 천한 노예나 장사치의 딸은 으레 선택에 비원(備員)될 수 없었는데 지금 시초의 대도(大道)를 바로잡음에 있어 의당 조종을 따라야 할 것이니, 인연이 닿아 궁중에 의탁해 살고 있는 자들을 쇄출(刷出;모조리 찾아냄)하여 내외의 구별을 엄히 하소서. 임금의 직분은 사람 쓰는 것이 큰일인데 현능한 자를 등용하고 우매한 자를 도태시키는 데에 치란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상께서는 연소하시어 신하들의 현부를 미처 살피지 못하실 처지이니 제수하실 적에 특지(特旨)를 써서는 안 됩니다. 금후 2품 이상에 궐원이 생기면 전조(銓曹;이조-문관, 병조-무관)에서 신중히 주의(注擬)하도록 하되 혹 사람이 부족하면 반드시 삼망(三望)을 갖추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진소(陳訴)와 송사는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맡기셔야 하고 만약 난처한 일이 있으면 조정에서 의논하도록 할 것이요, 절대로 판부(判付)하지 마심으로써 공도(公道)를 밝히소서. 대저 규중(閨中)의 일이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는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사의(私意)를 두면 남들이 다 알게 마련입니다. 제수하거나 판부할 즈음 혹 뇌물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써 불분명하거나 불공정한 처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의 원망과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저주(咀呪)로 마침내는 흙더미가 무너지는 듯한 멸망의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정원의 직책은 왕명의 출납(出納)을 미덥게 하는 데 있는 것인데 근일에는 위의 뜻을 받들기만 힘쓸 뿐 내지(內旨)를 봉환(封還)한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못 미덥게 해야 한다는 본의를 잃은 처사입니다. 정원으로 하여금 내지 중에 봉행하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논계할 것이요 경솔히 시행하지 말도록 하여 그 직책을 다하게 하소서.

후세의 임금으로서 능히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을 일체로 결속시킨 이가 드뭅니다. 더구나 지금 연소하신 주상이 위에 계시고 자전(慈殿)께서 섭정(攝政)하시는 터이어서 궁중과 부중이 갈라져서 둘로 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정사에 의문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조정과 의논하시고 죄를 논할 만한 것이 있으면 유사에게 맡기시어 공평하게 다스리소서. 만일 좌우의 근습(近習)에게 의논하든가 척리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하문하여 사문(私門)이 일단 열리게 되면, 정사의 큰 권한이 은밀히 옮겨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멸망하는 환난이 여기에서 연유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으며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호에 계속)

성인들의 사상

退溪 李滉과 進聖學十圖箚

〈지난호에 이어〉

이황의 학풍을 따른 자는 당대의 유성룡(柳成龍)·정구(鄭逑)·김성일(金誠一)·조목·이덕홍·기대승·김부륜(金富倫)·금응협(琴應夾)·이산해(李山海)·정탁(鄭琢)·정유일(鄭惟一)·구봉령(具鳳齡)·조호익(曺好益)·황준량(黃俊良)·이정(李楨) 등을 위시한 260여 인에 이르렀다. 나아가 그는 성혼(成渾)·정시한(丁時翰)·이현일(李玄逸)·이재(李栽)·이익(李瀷)·이상정(李象靖)·유치명(柳致明)·이진상(李震相)·곽종석(郭鍾錫)·이항로(李恒老)·유중교(柳重敎)·기정진(奇正鎭) 등을 잇는 영남학파 및 친영남학파를 포괄한 주리파 철학을 형성하게 했으니, 이는 실로 한국 유학 사상의 일대장관이 아닐 수 없다.

임진왜란 후 이황의 문집은 일본으로 반출되어, 도쿠가와가 집정(執政)한 에도(江戶)시대에 그의 저술 11종 46권 45책이 일본각판으로 복간되어 일본 근세 유학의 개조(開祖) 후지와라(藤原惺窩) 이래로 이 나라 유학 사상의 주류인 기몬학파 및 구마모토학파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고, 이황은 이 두 학파로부터 대대세세(代代世世)로 신명(神明)처럼 존숭을 받아 왔다. 이황의 학덕은 그의 생시(生時)와 한·일 양국의 역사에서 크게 선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 동경에 이퇴계연구회가 설립되었다.

대만에도 국립사범대학 안에 퇴계학연구회가 부설되었고, 근래에는 미국의 워싱턴·뉴욕·하와이에 이퇴계연구회가 조직되었으며, 독일 함부르크 및 본에 퇴계학연구회가 생겼다. 국제퇴계학회가 창설되어 1976년 이래로 거의 해마다 한국·일본·대만·미국·독일·홍콩 등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사후 4년 만에 고향 사람들이 도산서당 뒤에 서원을 짓기 시작해 이듬해 낙성하여 도산서원의 사액을 받았다. 그 이듬해 2월에 위패를 모셨고, 11월에는 문순(文純)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609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고, 그 뒤 그를 주사(主祀)하거나 종사하는 서원은 전국 40여 개 처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위패가 있는 도산서원은 제5공화국 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비 보조로 크게 보수·증축되어 우리나라 유림의 정신적 고향으로서 성역화되었다.

2001년 세계 유교문화축제 개막식에 이황의 종택부터 도산서원(陶山書院)을 거쳐 안동시내까지 30km의 길에 전국에서 수천명의 유림이 의관을 정제하고 깃발을 든 행렬은 장관이었다. 이에 맞춰 한국국학진흥원 전시실 벽면을 가득채운 영남학파의 퇴계학 전수도는 1000명의 퇴계학 계보가 그려져 있다. 주희(朱熹)가 중국에서 성리학을 집대성했다면 이황(李滉)은 조선 최고의 유학자로서 그 성리학을 우리의 삶속에 스며들게 하고 나아가 일본과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인간이 유교적 이상사회를 자발적으로 실현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시키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동의 유교 공동체를 통해 몸소 실천하였다.

퇴계(退溪)는 젊어서 무척 청아(淸雅)하고 정한(靜閑)한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즐겼으며 점차 철학적인 장중하고 간담(簡淡)한 체와 깊이를 갖추어 일가를 이루었다. 그가 문인들에게 보낸 서간(書簡)은 훌륭한 문학작품이요 진지한 철학적 논문이다. 그중 기고봉(奇高峯)과의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한 왕복서는 학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끈기 있게 진리탐구를 위하여 정진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글로서 퇴계학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린 제자 기대승과 8년간 논쟁을 벌인 사단칠정(四端七情)은 성리학의 심성론이 중국을 능가하게 하였다. 4단은 인간의 네 가지 도덕적 본성으로써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 야보하는 마음(辭讓之心), 잘잘못을 분별하는 마음(是非之心)을 가리키고 칠정(七情)은 인간의 본성이 겉으로 드러난 일곱가지 감정으로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망(欲)을 가리킨다.

퇴계는 20편을 추려 열독하며 반성의 자료로 한 자신의 자성록(自省錄)은 일본의 유학자들도 애송하였고 많은 학자들이 감분흥기(感奮興起)하였다.

〈다음호 계속〉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晩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佑成 (성균관대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4. 퇴계의 '四端七情, 理氣互發'(사단칠정 이기와발)設을 찬성함

퇴계선생이 '四端七情, 理氣互發'(사단칠정, 이기와발)설을 내놓은 뒤로 이것은 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일으켰다.

권씨 부자도 마찬가지로 이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四端(理) 七情(氣)사이의 관계를 천명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퇴계선생의 '四端七情, 理氣互發'설의 관점에 찬성하였다. 권득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본체범주 내의 '理'가 또한 동시에 가치범주로 이 두가지의 合一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理'는 만물의 '所當然'(소당연)과 '所以然'(소이연)이다.

바로 주자가 말한 바"天下未有無理之氣(천하미유무리지기), 亦未有無氣之理(역미유무기지리)"(朱子語 卷1)와 같다. 理·氣(리기)는 저로 의존하면서 서로 상대적이다. 그래서 권득기는 퇴계선생의 '四端七情, 理氣互發'설의 관점을 찬성하고, 四端七情에논氣를 제외한 理나 理를 제외한 氣는 없고 理·氣는 서로 따르고, 서로 포함되어서 어느 하나라도 빠질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사단칠정은 바로理·氣가 서로 발하여 서로 따르는 결과이고, 또한 그가 강조한 "四端七情(사단칠정), 其發者氣也(기발자기야), 所以發者理也(소이발자리야). 人心(인심)·道心皆然(도심개연)." 이다.

權諰(권시)는 與或人書(여혹인서)에서 학계의 四端七情설에 대한 논변에 대해, 비록 그가 몇가지 문제를 제시하였으나 그의 기본 견해는 역시 퇴계선생의 관점을 찬성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권시의 이러한 명백한 논술은 퇴계선생이 理氣에 관해서 主와 次의구분이 있다고 한데서 나온 것으로, 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理·氣가 상대하고 性·情이 상대한다는 말이다.

四端의 발생은 理가 主이고 氣가 次이다. 七情의 발생은 氣가 主이고 理가 次이다. 사단칠정은 곧 그 主가 같지 않은 것으로 각기 理와 氣에 속한다. 四端(理)와 七情(氣)의 主·次하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명확하게 했다.

권씨 부자가 퇴계선생의 '四端七情, 理氣互發'설을 찬성한 의도는 또 어떻게 善과 惡을 지니고 있는 '情'으로 하여금 순전히 선만 있고 악이 없게 하는가 하는 심성론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는 것임을 알수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理'가 비록 우주본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도덕윤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情과 善惡의변화는 '四端', '七情'관계의 정상화, 즉 '理'와 '氣'의 올바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다시말하면 '理·氣相隨(리·기상주)', '理·氣互發'에 理가 主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仁義禮智의 '四端'으로써 '七情 喜怒哀懼愛惡欲(희노애요아오욕)'의 感發(감발)과 스스로의 행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善性을 지키고 발휘할 수 있거나 악을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炭翁集(탄옹집)의 家狀(가장)중에 炭翁선생의 사람됨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권씨 부자의 심성론과 그들의 도덕론, 지행관, 교육론 모두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아울러 그 심성론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